



## 말의 온도

한 제자가 여쭙었다.

"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사람은 차고 어느 사람은 다스한테 이것은 저의 착각입니까. 사실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실이다.

덕이 없는 사람과 인연이 닿지 않은 사람은 차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가까운 인연이 되겠습니까?"

"자주 스스로 다스한 기운을 내야 한다. 덕은 다스한 것이다.

다습게 자주 문지르면 된다. 문질러 열 아니나는 물건이 없다.

땅도 다스한 덕이 있어서 만물을 살린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러면 위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라도 오래 한다면 형식이 실질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꾸준히 다스한 기운을 내야 한다.

도인이 그만한 다스한 기운을 내지 아니해서야 되겠느냐."

덕이 있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따뜻한 사람이 덕이 있다는 소리이기도 하겠지요.

따뜻한 사람이 되려면 자주 스스로 다스한 기운을 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따뜻한 말을 자신에게 먼저 많이

해주라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일부러라도 하다보면 형식이 실질이 되는 것처럼

따뜻한 말을 하고, 그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하게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의 온도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 법 회 식 순

사회 : 박성태

◎표시는 일어서서

타 종	.....	주례자
개 회	.....	사회자
불전헌배◎	..... 사회자 안내로 .....	다함께
입 정	.....	다함께
독 경	..... (일원상서원문, 전서 24쪽) .....	주례자
설명기도 및 심고가◎	..... (성가 128장) .....	사회자
법어봉독	..... 대산종사법어 제8 운심편 13장 .....	다함께
일상수행의 요법	..... (전서 54쪽) .....	다함께
설 교	..... “말의 온도” .....	최현교 교무
다 짐 심 고	.....	다함께
성 가	..... 등근노래 - 감사합니다. ....	다함께
공 고	.....	사회자
주간학사일정공고	.....	기획처장
폐 회	.....	사회자

## 법 회 안 내

구 분	시 간	장 소	구 분	시 간	장 소
월요 법 회	(월) 09:00	대 법 당	법 심 향	(수) 12:00 3학년	법 전 원
호운회	2, 4주 (목) 11:00	3층 소법당		(금) 13:00 1,2학년	선과인격 수련실
원맥회	(금) 11:30	대 학 선 방	원약회 [약대]	(화) 17:30	한의대 선명상실
원경회	3주(금) 15:00	3층 소법당	시리우스 [사범대]	(화) 13:00	자연대 선명상실
원화회	3주(금) 16:00	3층 소법당	선명상반 [자연대]		
의'치'한의계열	(목) 17:50	한의대 선명상실	원성회 [군사학부]	(목) 17:30	학부대 선명상실
대 학 생 회	(월) 17:30	동 아 리 방	가락 [학군단]	(수) 17:30	사회대 선명상실
목 요 선 방	(목) 12:00	대 학 선 방	선명상반 [사회대]	(화)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인문대	(금) 17:30	사회대 선명상실	원심회	(목) 18:00	외국인 교화센터
학생생활관	2, 4주 (화) 19:00	학생생활관 선방	차명상반	(수) 13:30	경영대 선방